

□ 94년도 定期總會 개최

우리 협의회는 2월 22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19차 정기총회를 갖고, 올해의 대학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93년도 사업실적 보고와 94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하였다.

제 1부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연구보고에서는 “대학교육의 쇄신과 학사개혁”(한신대 朱在鏞 총장), “대학의 재정위기와 대처방안”(창원대 朴楠珪 총장) 등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 2부 총회에서는 교육개혁위원회 발족에 즈음하여 그동안 새정부가 누차 강조해온 대학재정문제에 관한 약속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교육부 예산의 GNP 대비 5% 확보를 위한 단계적이며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95년도 교육예산의 GNP 대비 4.4%까지 늘릴 것 △현재 전체 교육예산의 9.4%에 불과한 대학교육 예산을 최소 16%까지 높일 것 △이를 위해 95년도 국립대학예산은 현재의 2배, 사립대학 국고보조금은 연간운영비의 10% 수준인 3,000억 원으로 확충할 것 △대학간 경쟁기반이 대단히 취약하므로 국·사립대 정책지원사업비 500억 원과 국책대학육성지원사업비 400억 원을 합리적으로 배정해 줄 것 △사립대학 일반보조사업비 500억 원의 대학별 배정액을 전반기에 내시해 줄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제 7대 임원개선에서는 회장단을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하자는 안과,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자는 안에 대한 표결에서 출석회원 과반수를 득표한 전형위원회 선출안(55표; 직선안 27표)이 채택되어 지역별·기능별 대학간 협의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전형위원회에서 회장단을 선출하였다. 그 명단은 아래와 같다.

△회장 : 金鍾云 서울대 총장 △부회장 : 金玟河 중앙대 총장, 鄭德基 충남대 총장, 朴在圭 경남대 총장 △감사 : 高長權 제주대 총장, 金鍾亮 한양대 총장

제 3부 설립별 대학 현안문제 협의에서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분과별로 나누어 당면과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서 주요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립대 분과 : △ 교직원 보수채정안 △ 대학별 고사 공동출제를 위한 문제은행 운영건의 △ 여자대학협의회 구성 △ 대교협 측에 대학 운영에 직접 연관된 주제를 연구과제로 채택할 것을 건의(사립대 각종 규제완화 방안, 사립학교법 등) △ 사립대학 교육개혁위원회 구성 모색

□ 高等教育研修院 설립 추진

우리 협의회는 △ 신입 총학장 및 그 후보자에 대한 지도성 개발 △ 대학 보직자(각 부서장)의 정보교환 및 직능개발 △ 신입교수 및 중견교수의 교직훈련과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기회 제공 △ 대학의 사무적 및 기술적 요원의 직무연수 △ 고등교육기관 관계자들의 해외단기연수 및 외국기관과의 공동연수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가칭 “고등교육연수원”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 22일 여의도 63빌딩 갤러리에서 있었던 우리 협의회 67차 이사회에서 대학 안팎으로부터 밀려오는 사회적·국제적 압력과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변화와 경쟁을 추구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대학의 생존전략과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연수체제를 자체적으로 정비하여 상설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에 따라 처음 거론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협의회는 앞으로 대학사회의 중지를 모으고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연수원의 설립·운영규정 마련,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연수원 독립건물 확보 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 94년도 大學綜合評價認定制
실시대학 확정

우리 협의회 산하 대학평가인정위원회는 지난 2월 16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제 4차 회의를 열고 올해 평가신청 14개 대학 가운데 경북대, 서울대, 전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등 6개 국립대와 포항공대 등 모두 7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협의회는 이들 7개 대학에 대해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는 대학별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뒤, 11~12월에 평가단을 보내 현지방문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인정' 또는 '불인정'으로만 구분해 발표하고 대학별 평점이나 서열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종합평가는 오는 2000년까지 7년 동안 실시하며, 이 기간에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은 7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평가결과 '불인정'을 받은 대학은 한 차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학종합평가는 학부의 경우 각 대학의 교육, 연구, 사회봉사, 교수, 시설·설비, 재정·경영 등 6개 영역에 100개의 평가항목을 설정한 뒤 항목마다 가중치를 달리해 총 500점 만점으로 평점을 매기며 대학원은 20개 평가항목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다. 교육영역 22개, 교수 15개, 재정·경영 22개 등 100개 평가항목 중 정량적 항목은 35개, 정성적 항목이 65개이며 항목마다 구체적인 평가근거가 되는 주요지표들이 설정돼 있다. 여기서 학부와 대학원의 평가영역 및 가중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학부

평가영역	평가부문	가중치
교 육	교육목적	14
	교육과정	40
	수업	32
	학생	34
연 구	연구실적	22
	연구여건	22
	연구지원체제	26

사회 봉사	사회봉사	14
	대외협동	16
교 수	교수구성	32
	수업부담 및 복지	12
	교수인사	20
	교수개발	16
시설·설비	교육기본시설	24
	교육지원시설	32
	실험실습설비	26
	후생복지시설	18
재정·경영	재정확보	24
	예산편성 및 운영	26
	기획 및 평가	14
	행정 및 인사	22
	대학의 의사결정	14
계		500

△ 대학원

평가영역	가중치
교육과정	20
수업 및 논문지도	36
교 수	22
시설·설비	12
재정·경영	10
계	100

□ 93년도 대학 化學科 · 機械工學科
평가결과

우리 협의회는 지난 2월 16일 93년도 대학 學科評價認定제에 의한 화학과와 기계공학과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화학과(이학계) : 64개교

(설치대학은 82개교)

△ 기계공학과(공학계) : 33개교

(설치대학은 45개교)

△ 평가영역 :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행정·재정 등 6개 영역

協·議·會·소·식

에 대하여 학부, 대학원별 평가

△ 화학과 우수대학 명단 (가나다순)

평가분야	대	학	명
학 부	강원대, 경북대, 경희대, 경희대(수원),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영남대, 울산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중앙대, 충북대, 포항공대, 한양대, 한양대(안산)		
대 학 원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충남대, 포항공대, 한양대		

△ 기계공학과 우수대학 명단 (가나다순)

평가분야	대	학	명
학 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금오공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인하대, 중앙대, 포항공대, 한양대, 홍익대		
대 학 원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인하대, 중앙대, 포항공대, 한양대		

□ 94 학년도 新入 회원대학 현황

△ 대교협 회원대학수 : 총 157 개 대학
(신입대학 6 개 포함)

△ 신입 회원대학 명단

학교명	법 인 명	주소 및 연락처	총 정원수
大佛工 科大學	영신학원	전남 영암군 삼호면 산호리 산 72-1 전화 : (0693) 71-0160 팩스 : (0693) 71-0165	400명
東洋工 科大學	현암학원	경북 영풍군 풍기읍 산법동 574 전화 : (0572) 30-1114 팩스 : (0572) 636-8523	400명
嶺南神 學大學	대구동산성서학원	경북 경산군 진량면 봉회리 117	140명

永同工 科大學	금강학원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제리 산 12-1 전화 : (0414) 40-1114 팩스 : (0414) 40-1059	400명
南서울 大 學	성암학원	충남 천안군 성환읍 매주리 21 전화 : (0417) 582-2111-6 (02) 929-2536 팩스 : (0417) 582-2117	840명
草堂產 業大學	초당학원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419 전화 : (0636) 453-4960-2 팩스 : (0636) 453-4969	760명

□ 研究報告書 및 資料 발간

◎ 모델대학의 대학교육비 추계 연구

대학의 합리적·효율적·과학적 운영은 국가 경제는 물론 교육경제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이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존재 가능성이 높은 세 가지 규모의 대학으로서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대학(모델대학)을 선정하고, 이러한 대학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교육비(모델대학의 교육비)를 추계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비와 실제 대학의 교육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대학교육비 투자와 운용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 연구는 규모별(모델별) 대학의 학생교육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과연 대학의 학생규모가 교육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대학의 전체 교육비가 법정 배분과 집행원리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자: 박영우(전북대), 김형근, 김병주, 조석훈(이상 대교협), 백봉호(한양대), 이정근(아시아개발은행), 나상구(충남대).

◎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시행을 위한 평가기준 개발 연구

앞으로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효율적·효과적

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대학의 질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것을 타당하게 측정·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평가준거가 적용되어야 하고, 대학의 가치를 어떤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는가 하는 미시적 차원의 제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현재의 한국 대학들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평가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인정기준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평가준거 및 평가기준은 개별 대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면서 그의 연구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평가영역별 및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하며,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을 설정한다.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평가인정기준은 평가항목별로 주어지는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인정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종합평가인정제 평가기준 연구는 인정기준을 제외한 평가기준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목적·조직·운영 등을 포함한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체계,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평가내용, 평가내용 요소별로 주어질 가중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등이다. 연구자: 이상주(울산대), 박종렬(경북대), 이화국(전북대), 이현청, 권기욱(이상 대교협), 맹광호(가톨릭대), 문숙재(이화여대), 박내희(서강대), 서정현(서울대), 이재창(고려대), 주삼환(충남대).

◎ 94 생물학계열 학과 평가인정기준

이 자료는 94년 학과평가인정제의 대상 학과로 선정된 생물학계열 학과의 평가를 위한 인정기준과 자체평가연구에 필요한 지침을 함께 묶어 발간한 것이다. 생물학계열 학과의 평가대상 학과인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생명과학과, 생물과학과의 평가인정기준은 이

자료에 수록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생물학계열 학과평가위원회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개발한 학과평가 기준 및 국내외 관련자료들을 참고하여, 수차에 걸쳐 심도있는 토의와 수정·보완 및 학계 전문가와 대학평가 기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 평가인정기준을 개발하였다. 이 기준은 개별 학과에서 수행하는 자체평가연구의 작성 기준이 되고, 학과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서면평가와 현지방문평가의 기준이 된다. 연구자: 최임순(연세대), 김상구(서울대), 김치경(충북대), 신길상(순천향대), 한홍의(인하대), 이화국, 백정하(이상 대교협).

◎ 94 화학공학계열 학과 평가인정기준

이 자료는 94년 학과평가인정제의 대상 학과로 선정된 화학공학계열 학과의 평가를 위한 인정기준과 자체평가연구에 필요한 지침을 함께 묶어 발간한 것이다. 화학공학계열 학과의 평가대상 학과인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의 평가인정기준은 이 자료에 수록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것은 위 자료와 마찬가지로 학과 평가인정기준을 학사과정과 대학원으로 나누어 △ 교육목표 △ 교육과정 △ 학생 △ 교수 △ 시설·설비 △ 행정·재정 등 여섯 분야별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자료를 제시하였다. 연구자: 장근수(포항공대), 목영일(아주대), 이철수(고려대), 이현구(서울대), 하백현(한양대), 강경석, 최두현(이상 대교협).

◎ 세계 주요국의 박사학위 수여 대학에 관한 조사연구

국제화·개방화라는 시대적 조류로 국제적 유동성이 높은 학문세계와 고등교육의 교류와 개방은 앞으로 더욱 촉진될 것이다. 이 조사연구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우리나라와의 학문적 교류에서 관계가 깊은 23개 주요국가를 선정, 박사학위 수여대학과 수여분야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서 I·

II·III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 I부에서는 이 연구의 배경과 주요국의 박사학위 수여제도를 개관하였다. 제 II부에서는 세계의 주요 국가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을 추출하여 각 대학의 연락처, 설립년도, 학생수, 설립주체, 교수수, 도서관 장서수, 대학원 설치영역 및 전공영역, 평가인정여부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제 III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학 중 박사학위 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특수고등교육기관 포함)을 기관별로 제시하였다. 연구자 : 이현청, 박진규, 현경식, 서경희, 이은영(이상 대교협).

◎ University Cooperation in the Far-Eastern Asia Toward the 21st Century

이 자료는 우리 협의회와 울산대가 지난 93년 12월 1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한 '21세기를 대비한 극동지역의 대학간 협력에 관한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된 기초강연, 주제발표, 토론, 결론 등을 실은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Opening Address : The Regional Cooperation Is Based on the Mutual Benefit : 이상

주(울산대 총장)

- Keynote Speech : Necessity and Prospect of University Cooperation Toward the 21st Century : 박춘호(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장)
- Topic-I :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Chinese Higher Education by Ms. Guiling LEE, Counselor, Mr. Luxin WANG, Attache/Education, Chinese Embassy in Korea
- Topic-II : Toward Greater University Mobility in Asia & Pacific by Dr. Ippei Yamazawa, Professor, Hitotsubashi University, Japan
- Topic-III : Improvement in Educ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echnical Sciences by Dr. Mikhail B. Krakovski,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of Concrete and Reinforced Concrete, Moscow, Russia
- Nominators Discussions : 유세희(한양대), 문명호(동아일보 논설위원), 정영식(울산대)
- Summary and Conclusion : 이현청(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